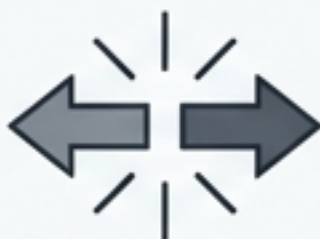




변동성의 귀환: 코스닥 급등과 글로벌 매크로 재편

거시경제 모순과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촉발한 글로벌 자본의 극단적 로테이션 진단



극단적 디커플링

KOSPI: **-0.98%**

KOSDAQ: **+7.17%**

외국인의 1.3조원 기술주 매도와
소형주/바이오 중심의 폭발적 랠리 교차.



매크로 모순

미 국채 10Y: +5bp

달러인덱스: 1.07

비트코인: \$103K

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
급등과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가
동시 진행되는 지정학적 프리미엄 장세.



블랙홀 유동성

SK하이닉스: 상장 임박

스페이스X: 나스닥 진입

최소 21조원에서 45조원에 달하는
초대형 달러 유입 이벤트가 글로벌
투자 자금의 흐름을 재편 중.

DOMESTIC MARKET: THE GREAT DIVERGENCE



주요 촉매제

외국인 1.3조원 순매도 압력. 미국 기술주 하락
삭풍과 대형 반도체 차익 실현.

리스크 포인트

코스피 8,400선 붕괴 및 해외 코인거래소 150배
레버리지 베팅 등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 부각.



주요 촉매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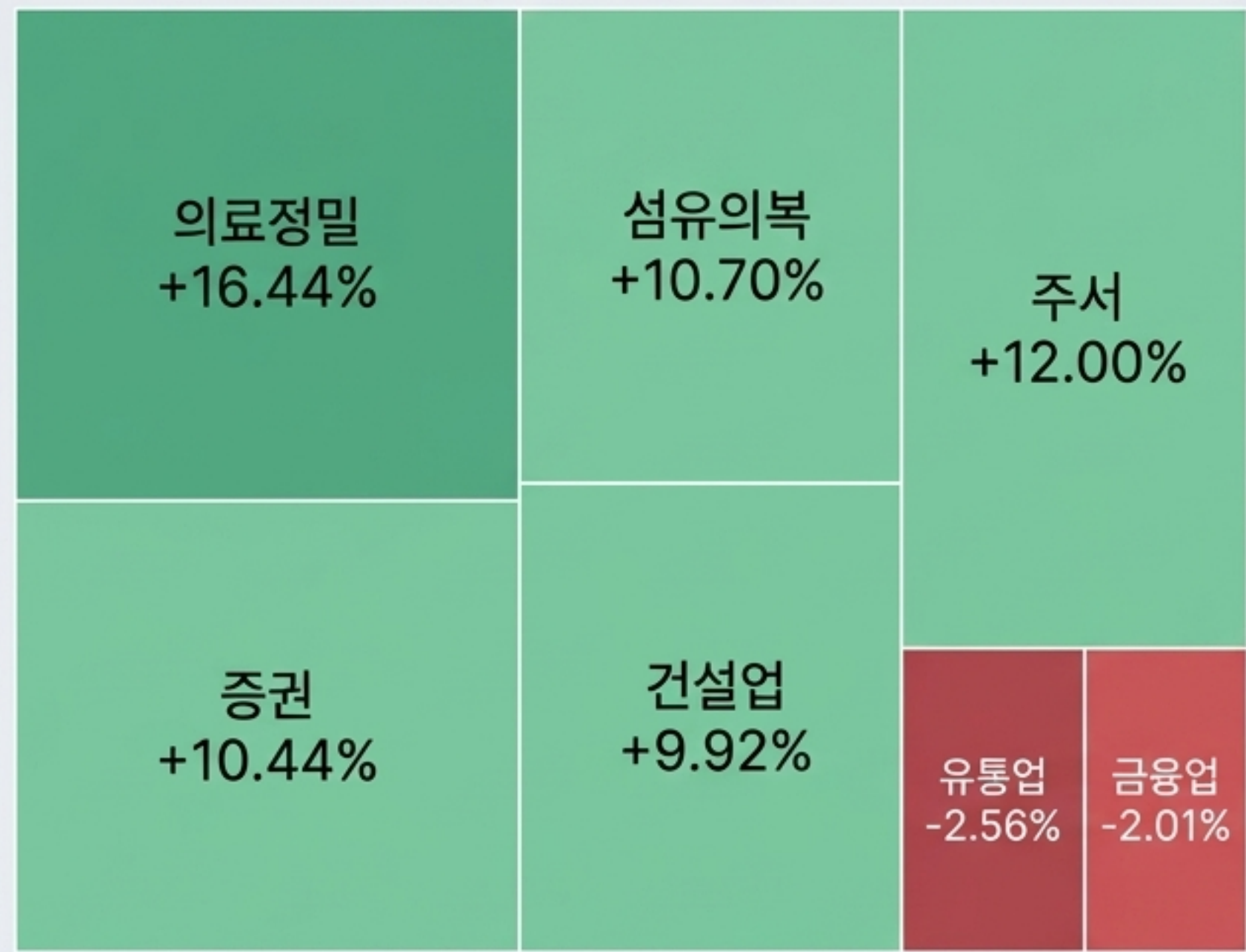
900선 단숨에 회복. 바이오 및 IT 소형주를
중심으로 한 강력한 외국인 순매수 전환.

기회 포인트

대형주 이탈 자금의 피난처 역할 및 수익률
키맞추기 장세 본격화.

DOMESTIC SECTORS & LEADERS: CAPITAL ROTATION

Sector Heatmap



주요 종목 등락

1	LG에너지솔루션	391,500원	+18.10%	*2차전지 압도적 강세*
2	삼성SDI	501,000원	+10.11%	
3	삼성전자	323,000원	-4.86%	*외인 매도 집중*
4	SK하이닉스	2,595,000원	-2.92%	

대형 반도체(삼전/닉스)에서 2차전지와 의료정밀로 자본이 급격히 이동하는 '수익률 키맞추기' 로테이션 장세 전개.

US EQUITIES: LIQUIDITY AND ROTATI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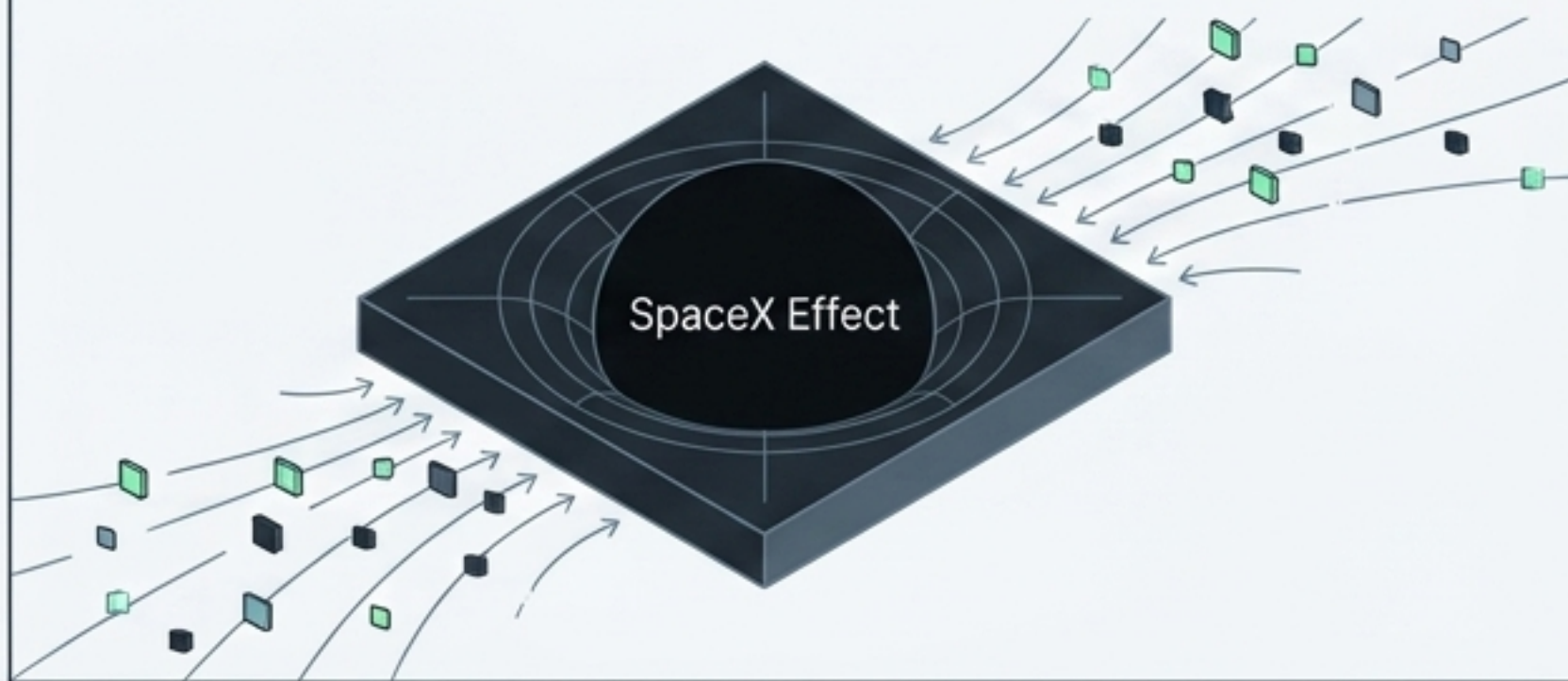
S&P 500 | 7,357.49 (0.00%)

NASDAQ | 25,297.62 (+0.1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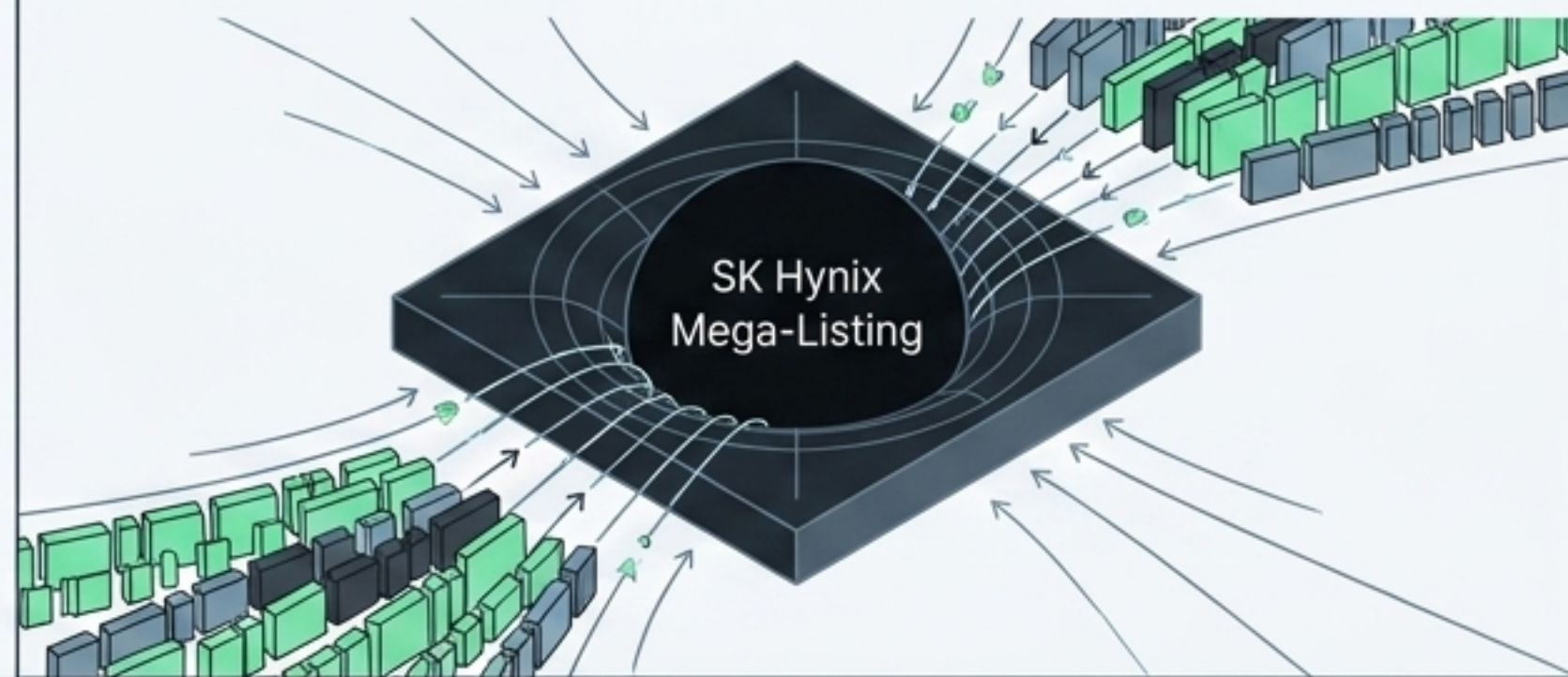
DOW | 51,876.11 (+0.97%)

섹터 동향: 부동산(+7.42%), 에너지(+2.00%) 강세 vs 유틸리티(-1.70%), 기술주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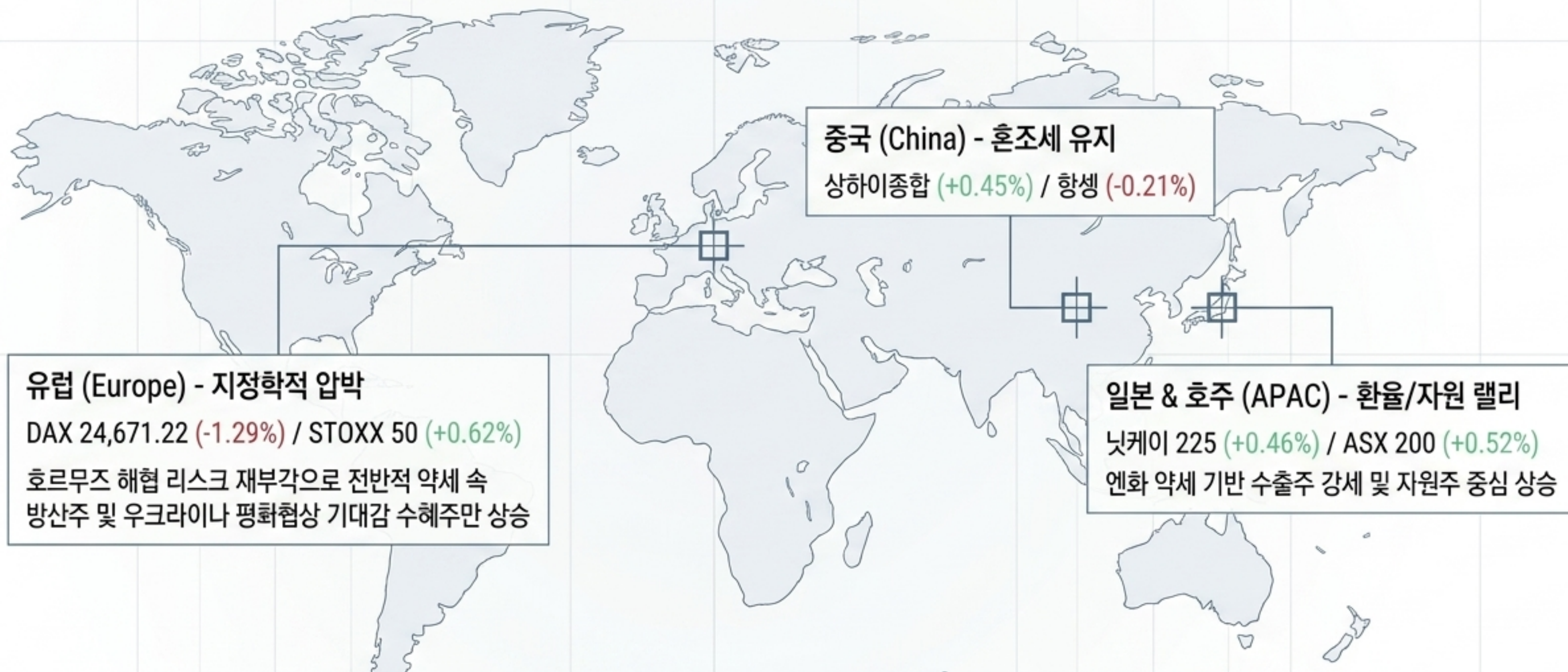
SpaceX Effect: '서학개미' 귀환. 두 달 만에 순매수 전환을 이끈 스페이스X 나스닥 100 초고속 진입 리스트업.



SK Hynix Mega-Listing: SK하이닉스 미 증시 상장 임박. 45조원 규모 조달 및 최소 21조원 이상의 막대한 달러 유입 기대감으로 AI 메모리 주도권 강화. 국부펀드의 사모/인프라 이동과 달러 불신이 교차하는 중.



GLOBAL EQUITIES: REGIONAL CROSSCURR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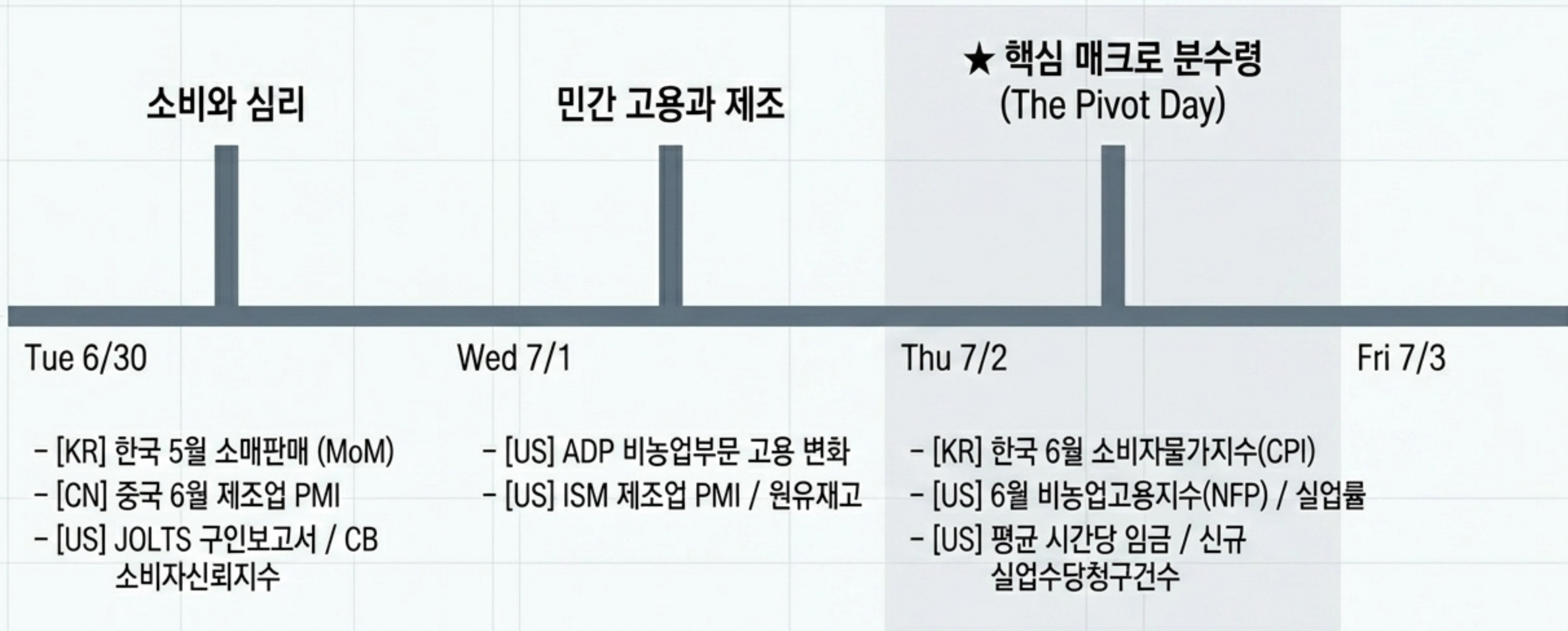


미래에셋 'MAPS' 플랫폼 공개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 대폭 확대,
향후 아시아 자본 흐름의 주요 변수로 부상

FICC & MACRO: THE GEOPOLITICAL PREMIUM



THE WEEK AHEAD: MACRO CATALYST TIMELINE



인사이트: 목요일 미국 고용지표(NFP)와 한국 CPI 발표가 하반기 금리 경로를 확정짓는 주간 최대 변동성 구간.

STRATEGIC IMPLICATIONS

	현상 (Observation)	의미 (Implication)	관전 포인트 (Actionable Watch Point)
코스피/코스닥 디커플링	대형 기술주 외인 매도 vs 바이오/IT 소형주 급등.	지수 베타보다 철저한 '수익률 키맞추기' 종목 장세로의 전환.	스페이스X 및 SK하이닉스 상장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쏠림 현상 추적.
매크로 지표 모순	미국채 금리 상승 속 달러 약세, 원화 강세.	단기적 금리차보다 ECB 재평가 등 구조적 통화 패권 이동에 시장이 반응.	목요일(7/2) 미국 비농업고용지수(NFP)와 한국 CPI 결과에 따른 채권 로테이션.
지정학적 인플레이션 리스크	중동 충돌로 WTI 및 비트코인, 금 동반 상승.	전통적 안전자산(금)과 디지털 위험자산(BTC)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동조화.	원유 및 디지털 자산의 추세적 저점 확인 후 진입 전략 수립.